

기도

1.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합니다.
2.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눔

1. 병에 걸렸을 고침 받은 적이 있습니까?
2.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신앙

바이블로 데살로니가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의 날이 이르렀다.”(2:2)는 주장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동요하고, 예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일하는 것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예수의 재림 전에 일어나야 할 사건들에 대해 가르친다. 그리고 게으른 자들로부터 교회 공동체가 갈라져야 함을 가르쳐준다.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사야 2장 2-4절)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11장 4~10절 (23장, 428장)

본문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지만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영이 만들어지고, 우리 심령에 주님을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심령이 낮이 되어 빛 가운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4~6절).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들었고(1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3절).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병든 것을 아셨고,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낸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4절). 그리고 계시던 곳에서 이들을 더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병에 걸리는 원인이 무엇이나는 것입니다. 첫째, 죄로 인해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병이 생긴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병이 들고, 육체가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고침 받을 때 죄를 씻음 받음으로 병도 낫게 된 것처럼 우리도 병이 들었을 때 자신의 죄를 찾아 회개해야 됩니다.

둘째, 귀신으로 인하여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거라사인이 귀신으로 인해 병든 자와 같이 살았습니다(막5:1~5). 귀신은 사람이 뿌리 뽑지 못한 죄의 쓴 뿌리를 통해 사람 속에 들어와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둡게 하고, 마음의 병이 들게 합니다. 하지만 귀신이 아무리 강하게 역사하더라도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본문의 나사로뿐 아니라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맹인도 그의 부모나 본인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넷째, 연단하기 위해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병들면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병으로 인해 힘들고, 두렵게 되고,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롬5:3~4). 이처럼 환란을 통해 인내를 이루면 연단이 되고, 소망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믿음을 써도 고침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병에 걸렸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고, 거듭난 영이 자라나고 만들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7~10절).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실 때 제자들이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라고 말합니다(7~8절).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것이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때가 낮과 같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9절). 하지만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10절).

낮은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가 낮과 같은 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병들고, 고난과 환란을 당해도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 평안하고 잘 되더라도 주님을 모시지 못하면 밤과 같아서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고, 인정하면 우리 속에 낮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려고 힘쓰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해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빛 가운데 살 수 있게 됩니다. 병에 걸렸어도 예수님을 모시면 감사할 수 있고, 병을 고침 받지 못해도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심령이 낮이 되어 빛 가운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맺 음 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병들면 회개하여 고침 받아야 되고, 귀신의 능력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연단을 통해 우리를 자라게 하거나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을 우리 심령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낮과 같이 되어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 실족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